

## 회의통역은 어떻게 통역학의 화두가 되었나\*

이 향\*\*

**Hyang Lee (2023). How conference interpreting rose to prominence in Interpreting Studies.** *This paper reflects on how conference interpreting, over any other form of interpreting, came to occupy a prominent place in research on interpreting. It examines the history of conference interpreting and its interconnectedness with the history of research on interpreting. The first conference interpreters are traced back to post-World War I Europe, where the first multilingual international conferences were held to establish the terms of peace. The full-scale adoption of simultaneous interpreting at the Nuremberg trials following World War II is discussed as the next turning point that bolstered scholarly interest in interpreting. This study goes on to observe how research on interpreting expanded as it increasingly “branched out” from Translation Studies and carved out its own territory. Research in South Korea on interpreting seems to have followed a similar trajectory, with a focus on conference interpreting and interpreter training. As Interpreting Studies broadens its boundaries both at home and abroad, it is important to map out the directions in which it can grow.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in order to look forwar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eywords: Interpreting Studies, conference interpret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conference interpreter, Nuremberg trials**

주제어: 통역학, 회의통역, 동시통역, 회의통역사, 뉘른베르크 재판

---

\* 이 연구는 2023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교수

# 1. 들어가는 말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통번역학은 현재의 이슈들을 탐구하고 대응하는데 집중해 왔다. 팬 번역, 통번역 테크놀로지, 기계번역, 원격통역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들이 최근 학계의 관심사였다. 실무에서 동떨어진 사변적 이론에 대한 비판이 통번역학이라는 학문장 형성의 주요 동인 중 하나였음을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 맥락을 살펴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다. 가령 초기의 통역학이 왜 유독 회의통역(*conference interpreting*)<sup>1)</sup> 연구에 집중했는가라는 질문이 그렇다. 일찍부터 이 질문을 던진 크로닌(Cronin 2002: 49-52)은 1989년부터 1994년 사이 발표된 통역연구의 2/3 이상이 회의통역을 다루고 있다는 피히하커(Pöchhacker 1998: 169-176)의 통계를 인용하며, 통역학이 회의통역 연구에 집중해 온 결과 지역사회통역, 양자통역, 대화통역 등 다양한 통역양상이 학문 안에 고르게 담기지 못하고, 회의통역이 주된 통역방식이 아닌 개도국의 통역 현실이 무시되었으며, 심지어 선진국 내에서도 난민, 이주민, 소수민족의 통역 현상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한다.

통역학의 회의통역 연구에의 편중은 베이커(Baker 2006: 111-130)도 지적한 바 있다. 베이커는 순차통역이나 지역사회통역이 조금씩 연구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통역학은 여전히 회의통역연구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통역의 인지적 측면, 통역사의 정신적 부하, 연사의 발화 속도 등 회의통역과 직결된 주제들이 여전히 통역학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인다. 질(Gile 2009: 141)의 설명대로 통역학이 회의통역 외에 지역사회통역 등 여타의 영역을 아우르며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이 (2009년 기준으로) ‘비교적 최근’<sup>2)</sup>이라면, 통역학은 학문적 입지를 구축하기 시작한 70년대부터 꽤 오랫동안 회의통역 연구에 집중한 셈이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 1) 여기서 ‘회의통역’은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통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반대어는 회의장이 아닌 관공서, 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을 통칭하는 지역사회통역(*Community Interpreting*) 이 될 수도 있고, 통역방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화통역(*Dialogue Interpreting*)이 될 수도 있다. 회의통역과 구분되는 대화통역의 특성에 관해서는 바덴쇼우(Wadensjö 1998)를, 이를 개괄한 국내 연구로는 고영민(2004)을 참고한다.
  - 2) 통역학이 회의통역을 넘어 지역사회통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지역사회통역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한 90년대를 중요한 기점으로 보기도 한다. 통역학의 지역사회통역으로의 확장이 통역학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이항(2022: 13)을 참고한다.

크로닌(2002: 50)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정학적(geopolitical) 맥락을 지목한다. 회의통역의 최대시장이 유럽이고 따라서 대다수 회의통역사들의 본거지가 유럽 혹은 서구 국가인 바, 이들의 실무적 관심사가 통역학의 이론적 화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정학적 맥락은 왜 생겨난 것일까?

본고는 초기 통역학이 회의통역 연구에 집중하게 된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회의통역이 탄생한 유럽으로 돌아가, 통역이 학문화(academisation)되는 과정에서 회의통역의 등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질문은 통역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 번역학으로부터 ‘분기’해 고유의 영역을 구축했는가라는 보다 큰 질문과 부분적으로 겹치기도 한다. 그 방대한 연구의 출발점인 본고에서는 우선 아래 세 질문에 부분적으로나마 답하는 것에 만족하려 한다.

첫째, 통역은 어떤 계기로 학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회의통역의 탄생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여기서는 1차대전 직후 유럽의 국제무대에서 회의통역이라는 새로운 외교방식이 생겨난 맥락을 살피고, 특히 동시통역의 등장과 함께 회의통역사라는 직업이 학계의 관심을 끌게 된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둘째, 통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어떻게 학문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회의통역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여기서는 통역학이 고유의 영토를 확보하게 된 몇몇 계기들을 역시 유럽의 맥락에서 살펴보려 한다.

셋째, 한국의 통역학의 모습은 어떤가? 이 장에서는 앞 장의 논의를 토대로 국내 통역학의 현황과 회의통역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개괄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논의 과정에서 오해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요 개념을 아래의 뜻으로 사용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첫째, 본 연구에서 ‘번역’은 늘 좁은 의미의 번역, 즉 텍스트의 번역을 의미한다. 통역을 포함할 경우는 ‘통번역’으로 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통역연구(Interpreting Research)’와 ‘통역학(Interpreting Studies)’은 동의어가 아니다. ‘통역연구’는 통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연구를 지칭하고 ‘통역학’은 그러한 연구들이 생산되는 학문 공간의 명칭<sup>3)</sup>이다.

---

3) 이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한 것일 뿐, 사실 ‘연구’와 ‘학’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가령 Cultural Studies를 ‘문화연구’로 부를 것인가 ‘문화학’으로 부를 것인가는 Studies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과학철학적 물음을 제기한다. 통역연구(Interpretation Research)와 통역학(Interpreting Studies) 중 어떤 명칭을 선택

셋째, 통역과 번역을 포괄하는 학문의 이름은 ‘통번역학’으로 쓴다. 번역을 대상으로 한 학문은 ‘번역학’으로, 통역을 대상으로 한 학문은 ‘통역학’으로 쓴다.

## 2. 회의통역, 학문의 장으로 들어오다

최초의 통역연구를 특정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연구(academic research)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부터 어떤 언어, 어떤 형식까지 포함하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의통역사가 프랑스로 쓴 통역에 대한 실무적 안내서(Herbert 1952, Rozan 1959)가 언급되기도 하고 회의통역을 주제로 한 최초의 석사논문(Paneth 1957)이 최초의 학술연구로 제시되기도 한다. 회의통역사가 독일어로 쓴 최초의 박사논문(Pinter 1969)이 최초의 통역연구로 간주되기도 한다(Gile 1994: 149).

그런데 1950년대에 발표된 위 연구들보다 20여년 앞선 산츠(Sanz 1930)의 연구가 회의통역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로 지목되기도 한다(Pöchhacker 2017: 308). 통역 실무자가 아닌 심리학 전공자 산츠는 당시 국제연맹, 국제노동기구, 외교부 등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20명의 회의통역사 및 관련자를 면담한 후 통역사의 근무조건, 업무특성, 통역방식, 통역능력 등을 분석하였다. 회의통역이라는 고도로 복잡한 직업을 수행해 내는 통역사들에게 어떤 심리적 자질과 인지적 능력이 필요한가에 집중하면서, 저자는 양차 대전 사이 기간에 통역을 수행한 최초의 회의통역사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들을 제공한다(Baigorri-Jalón 2014: 72-75). 산츠의 연구는 당시 생소한 직업이었던 회의통역사가 인접 학문의 관심을 끌 정도로 흥미로운 주제였음을 보여준다. 회의통역, 회의통역사는 앞서 언급한 에르베르(Herbert 1952), 로장(Rozan 1959), 파네스(Paneth 1957), 핀터(Pinter 1969)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통역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한결같이 ‘회의통역’과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통역은 정확히 언제 생겨났을까? 물론 여기서 ‘회의’는 하나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따라서 통역으로 매개될 수밖에 없는 ‘다언어 국제회의’를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제회의의 출발점으로 종종 언급되는 것은 1차대전 종전 후 피해 복구와 평화체제를 논의한 파리평화회의(1919)<sup>4</sup>이다. 물론 1919년 이전에도 국가

---

하는가 역시 통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위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간 회의나 협상이 없었을 리 없다. 그러나 1차대전 이전의 국제회의는 대체로 다자 회의가 아닌 양자 회의였으며 유럽의 경우 관행적으로 프랑스어가 외교어로 사용되었다(Minns 2020). 대부분의 외교관들이 프랑스어를 구사하였고 심지어 프랑스어 구사를 조건으로 선발되었으므로 별도의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파리평화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1919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베르사이유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국제회의외교(diplomacy by conference)라는 새로운 협의 방식을 실험하게 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32개국 대표들이 평화를 논의한 이 시기, 프랑스어 외에 영어가 회의언어로 추가되면서 회의통역이라는 것이 비로소 탄생하게 된 것이다(Baigorri-Jalón 2005: 990).

초기 회의통역은 주로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순차통역이었다. 1차대전 기간 중 프랑스어에 서툰 영국과 미국의 고위급 인사를 통역했던 이중언어화자 혹은 외국어 전문가들이 회의통역사로 투입되었다(Herbert 1978: 6). 회의통역을 교육하는 기관은 커녕 통번역교육기관 자체가 부재)했던 당시, 사전 교육 없이 실무에 투입된 이들은 노트테이킹을 포함한 통역테크닉을 현장에서 체득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통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2차대전 후 순차통역이 동시통역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사실 순차통역의 본질적 한계는 1차대전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미 1919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최초의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sup>6)</sup>에서 순차통역으로 인한 시간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 회의 참석자의 상당수는 외교관이 아닌 국가별 노사기구 대표였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통역이 필요에 따라 추가되면서, 순차통역에 따른 시간지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Baigorri-Jalón 2005: 995-988). 국제연맹이 아닌 국제노동회의에서 1920년대부터 동시통역이 실험<sup>7)</sup>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4) 회의통역의 탄생 및 성장을 기술한 바이고리 잘론(Baigorri-Jalón 2014)의 저서 제목은 ‘파리에서 뉘른베르크까지(From Paris to Nuremberg)’이다. 여기서 ‘파리’는 파리평화회의를 ‘뉘른베르크’는 동시통역이 대대적으로 도입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을 칭한다.

5) 한나(Hanna 1965)는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미국의 총 11개 통번역교육기관을 소개하면서 1940년 창설된 제네바통번역학교를 가장 오래된 통번역 교육기관으로 소개한다. 물론 이 목록은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며 동유럽과 구소련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6) 바이고리 잘론(Baigorri-Jalón 2005: 995, 998)은 이 회의가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각국 대표가 참여한 최초의 대규모 다국가, 다언어 국제회의였다고 설명한다.

7) 동시통역이 최초로 사용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 역시 단순치 않다. 체르노프(Chernov 1992: 149)에 따르면 1928년 소련의 제6차 코민테른 회의에서도 동시통역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일찍부터 실험되었던 동시통역이 그로부터 몇십 년 후인 1945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1920년대부터 실험된 동시통역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대로의 동시통역이 되기까지 대략 20여 년간 여러 단계의 기술적 보안을 거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동시통역이라는 복잡한 통역방식이 하루아침에 발명되었을 리는 없다. 보스턴 출신의 사업가 필렌(Filene)이 고안한 초기 동시통역 장비<sup>8)</sup>는 1927년 제네바 국제노동회의에서 실험되었으나 마이크나 송수신기의 기술적 한계, 회의참석자들의 이해 부족, 그리고 새로운 통역방식에 대한 통역사들 및 사용자들의 불신 등의 난관에 부딪혔다. 동시통역의 품질을 믿지 못한 주최자들은 속기, 위스퍼링, 순차통역, 녹음 등을 일종의 안전장치로 함께 사용하기도 했으며 통역사를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가에서부터 발화 속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통역 장비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실험되었다.

드디어 1945년,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에서 동시통역이 대대적으로 도입된다. 1945년 11월 20일부터 1946년 10월 1일까지 24명의 전범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402회에 걸쳐 열린다<sup>9)</sup>.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가 사용된 이 재판에서 동시통역 외에 다른 통역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sup>10)</sup>했다. 결국 40여 명의 통역사들이 3개팀으로 나누어 4개의 부스(영, 러, 독, 불)에서 동시통역을 수행<sup>11)</sup>하게 된다(Skuncke 2002). 전세계에서 선발되어 간단한 동시통역 훈련<sup>12)</sup>을 받고 세기의 재판에 투입되어 600만 단어 분량의 재판을 동시통역한 통역사들은 이후 여러 국제기구로 흩어져 동시통역의 확산에 기여한다. 말 그대로 새로운 직업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8) IBM에서 제작한 이 동시통역 장비의 정확한 명칭은 ‘IBM Hushaphone Filene-Finlay System’으로 훗날 아이젠하워의 통역사이자 국제군사법정(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의 통번역팀장이었던 레옹 도스터트(Léon Dostert)의 제안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에 도입된다. 이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가이바(Gaiba 1998: 34-52)를 참고한다.

9)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는 24명의 전범 중 22명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별 신상과 판결 내용, 재판의 쟁점에 대한 요약은 최한준(2007)을 참고한다.

10) 가이즈(Guise 2020)는 이 재판이 동시통역이 아닌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었다면 재판 기간이 4배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11) 보웬과 보웬(Bowen and Bowen 1985)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미국인 잭슨 판사와 독일인 전범 피링 사이에 통역 문제를 두고 벌어진 설전을 포함, 동시통역이 실험된 역사적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술한다. 트리에스테 대학교에서는 2022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의 통역과 관련된 특별호를 발행한다 (참조 *The Interpreters' Newsletter*, 2022, 27 bis).

12) 1940년 개설된 제네바통번역학교에서 동시통역 교육이 시작된 것은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이다 (Skuncke 2002 참고).

(Gaiba 1998: 159).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동시통역의 수요증가와 함께 회의통역사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1953년 회의통역사 직능단체인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sup>13)</sup>의 창설로 이어졌다.

동시통역의 탄생은 실무 차원에서뿐 아니라 통역의 학문화 과정에서도 중요하다.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동시통역을 도입하게 되고, ‘들으면서 말하는’ 혁신적 통역방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언어학, 심리학, 언어교육 등 인접 학문과 연계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Gaiba 1998: 164). 1950년대 이후 발표된 통역연구들은 회의통역(특히 동시통역)이라는 놀라운 작업을 수행하는 회의통역사의 노하우, 통역 프로세스, 교육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언급된 에르베르(1952), 로장(1956) 등의 연구는 직업탄생의 현장에서 통역 경험을 쌓은 최초의 회의통역사들이 남긴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학술연구라기보다는 스스로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한 것에 가깝다. 회의통역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입지를 굳히고, 회의통역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통역학이라는 학문이 바로 탄생한 것은 아니다. 회의통역에 대한 관심의 고조가 통역학이라는 학문의 표방으로 이어지는 데는 몇 단계가 더 필요했다.

### 3. 통역학, 회의통역사와 함께 성장하다

통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촉발시키는데 기여한 회의통역사들은 이후 통역학의 탄생 및 성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회의통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국면들을 언급해 보면 아래와 같다.

통역을 대상으로 한 학문적 연구는 1974년 파리 3대학 통번역대학원(ESIT: *École Supérieure d'Interprètes et de Traducteurs*)에 통번역학 박사과정<sup>14)</sup>이 개설되

---

13) AIIC(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Interprètes de Conférence)는 말 그대로 전 세계 회의통역사들의 직능단체이자 노조의 성격을 가진 단체로, 당시 회의통역사로 활약하던 안드로니코프(Andronikof), 카민커(Kaminker)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 AIIC는 지난 2013년 창설 60주년을 기념하여 AIIC의 역사를 정리하여 ‘직업의 탄생(Birth of a Profession)’이라는 제목으로 로 발간하였고 영문판은 2019년에 발간되었다. 세부내용은 AIIC 홈페이지(<https://aiic.org/site/world/about/history>)를 참조한다.

14) 개설 당시 이 학위과정의 정확한 명칭은 ‘통역과 번역에 대한 학문 및 기술(Science et Techniques de l’Interprétation et de la Traduction)’이었으며 이후 ‘통번역학(Traductologie)’으로 개칭된다.

면서 큰 전기를 맞게 된다. 제네바통번역학교를 비롯한 여타 통번역교육기관에 개설된 과정이 학사 혹은 석사과정의 통번역 실무교육이었다면, ESIT의 통번역학 박사과정은 통역실무자가 아닌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더욱이 이를 주도한 인물이 ‘드골 장군의 통역사’로 명성을 날린 회의통역사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sup>15)</sup>였다는 사실은 이후 통역학(더 나아가 통번역학)의 성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셀레스코비치는 AIIC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동시통역교육을 포함한 실험적 회의통역 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ESIT를 독보적 통번역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킨다. 셀레스코비치를 포함한 파리스쿨의 연구자들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통번역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제안하고 이를 해석이론(Interpretive Theory)<sup>16)</sup>으로 담아냈다. 파리스쿨의 공과나 해석이론의 학문적 엄밀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나 해석이론에 대해 시종일관 비판적<sup>17)</sup>이었던 쥘(Gile)도 70년대 이후 통역학의 성장 과정에서 파리스쿨이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인정한다. 실제로 1970년대에 전 세계에서 발표된 총 7편의 통역 관련 박사논문 중 5개가 ESIT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당시 파리스쿨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Gile 2009: 135-137). 해석이론은 이후 실용번역과 문학번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이론으로 확장되지만 회의통역 현장을 중심축으로 한 이론적 토대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통역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게 만든 또 하나의 계기로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통역번역학교(SSLMIT: School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Trieste)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를 언급할 수 있다. 이 학회에는 통역 연구자와 교수자 뿐 아니라 신경생리학자, 심리언어학자 등이 참여하여 통역능력, 통역교육, 통역프로세스 등 통역의 다양한 양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Gile 2009: 145; Pöchhacker 2009: 63). 회의통역을 핵심 화두로 한 이 학회가 중요한 이유는 인접학문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통역에 대한 학제적 탐구의 가능성을

- 
- 15) 회의통역사로서의 셀레스코비치의 활약과 ESIT에서 수행한 통역교육 및 통역연구에서의 학문적 기여에 관한 내용은 그녀의 제자이자 동료인 쓴 전기 빌룬트 판티니(Widlund-Fantini 2004)를 참고한다.
  - 16) 실무현장과 동떨어진 기존의 언어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구축된 해석이론은 통번역을 언어코드 전환이 아닌 ‘해석’과 ‘탈언어화’를 거치는 인지적 과정으로 설명한다. 해석이론의 특징 및 한계에 관한 연구는 이향(2009)을 참고한다.
  - 17) 파리스쿨의 폐쇄성과 도그마적 태도에 대한 쥘의 비판은 여러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참고: Gile 1995: 15; Gile 2000: 300-301; Gile 2009: 137-138). 한편 해석이론에 대한 비판을 해석이론 입장에서 반박한 내용은 빌룬트 판티니(2004: 190-192)를 참고한다.



확인<sup>18)</sup>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학회에 참석한 통역학자 중 상당수가 1992년 비엔나 번역학총회(Translation Studies Congress)에 참석하였고, 여기서 짙은 통역학(Interpretation Studies)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다(Schäffner 2004: 105). 비엔나 총회에서 창설된 유럽번역학회(EST: European Society for Translation Studies)는 번역과 통역을 모두 포괄함을 선명하게 명시한다(EST 홈페이지).

한편 프라하 학술대회에서 잘레브스키(Salevsky 1993: 149-452)는 영어의 ‘translation’이 때로는 번역을, 때로는 통번역을 지칭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지적하면서 통번역을 아우르는 상위학문 통번역학(Translation Science) 안에서 번역학과 적어도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는 별개의 축으로서의 통역학(Interpreting Studies)의 자리를 주장<sup>19)</sup>한다. 잘레브스키는 마침내 독자적 학문영역으로서의 통역학을 통역학 지도로 그려 낸다. 이 지도에서 통역학은 크게 이론, 기술, 응용의 3개 범주로 구획되고 통역학의 다양한 영역이 표시된다(Salevsky 1993: 149-152).

통역학의 가시도를 높인 몇 가지 계기를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1996년 통역연구에 온전히 할애된 국제학술지 *Interpreting*의 창간을 언급할 수 있다. 제네바통번역학교(ETI: École de traduction et d'interprétation)의 통역학자 모저 머서(Moser-Mercer)와 인지심리학자 마사로(Massaró)의 협업의 결과물인 이 학술지는 통역연구자들을 결집시키고 학문명을 가시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뒤이어 통역학이라는 학문명을 전면에 내세운 저서들도 출판된다. 오랫동안 학문명에 명시되지 못했던 통역연구는 비로소 TIS(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라는 확장된 학문명으로 명시되기에 이른다(Gile 2021: 44-45).

90년대 이후의 통역학의 행보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다. ‘학’으로서의 성장을 모색하기 시작한 통역학은 회의통역을 넘어서서 법정통역, 의료통역 등 지역사회통역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미국, 스웨덴 등 이민자가 많은 국가의 연구자들에 힘입어 이주민통역, 법정통역 등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1995부터 캐나다 연구자들의 주도로 기획된 크리티컬 링크(Critical Link)는 지역사회통역 관련 전 세계 전문가들을 결집시켜 회의통역연구에 집중했던 통역학을 획기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학문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Pöschhacker 2009: 67-69).

---

18) 트리에스테 학회의 세부적 논의 내용은 이 학회의 프로시딩을 엮어 만든 그랜과 도즈(Gran and Dodds 1989)를 참조한다.

19) 통역학과 번역학;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통합적 학문으로서의 통번역학의 본질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통역연구자와 번역연구자 사이의 긴장과 시너지, 협력의 모색 등에 관한 논의는 샤프너(Schäffner 2004)를 참고한다.

이러한 확장으로 회의통역사가 대다수였던 통역연구자 풀도 다변화된다(Gile 2009: 141). 오늘날의 통역학은 회의통역을 넘어서서, 그리고 유럽을 넘어서서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 4. 국내의 통역학

국내에서 회의통역 혹은 회의통역사라는 전문직업에 대한 인식은 19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동시통역대학원(현 통번역대학원)이 개설되면서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회의통역사 교육은 점차 회의통역 경험을 갖춘 실무자들에게 맡겨졌으며 90년대 후반, 통번역학이라는 학문 공간이 탄생하면서 실무현장과 교육 현장의 경협이 논문 형태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국내 통역 연구의 본격적 출발점이다.

국내 통번역학의 탄생 시점을 90년대 후반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시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통번역학 관련 학회, 학술지가 만들어지고 통번역학 박사과정이 개설<sup>20)</sup>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학문명 ‘통역번역학(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에도 통역이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학술지 명칭에도 통역은 중요한 한 축으로 언급되거나, 혹은 명시하지 않고 ‘번역학’으로 쓰는 경우에도 통번역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국내 통번역학의 역사는 대략 30여 년 정도로 그 역사가 길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통역학으로 좁혀 국내 연구의 특징을 논하기에는 연구자 규모<sup>21)</sup>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인접학문으로부터 연구자 유입이 많았던 번역학과 달리, 통역학의 경우 타 학문으로부터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적은 표본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통역연구 현황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sup>22)</sup>하고 이후

---

20) 국내에서 통번역학 전문학술지 『통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는 각각 1997년, 1998년, 1999년에 창간되었으며, 『통번역교육연구』는 2000년, 『T&I Review』는 2011에 창간되었다. 세종대학교 영문학과에 번역학 박사과정이 개설된 것이 2000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 박사과정이 개설된 것은 2000년 9월이다. 국내 통번역학의 탄생 및 성장에 관한 논의는 리와 남(Lee and Nam 2019)을 참조한다.

21) 원종화(2015: 49)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주요학술지에 통역 관련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수는 총 81명, 그 중 5편 이상의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는 12명이다.

22) 지면의 한계상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으나 국내 통번역학 연구의 경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초기

성장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작업은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는 국내 통번역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통역 관련 논문들을 연구 방법이나 키워드별로 분류하고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 중심으로, 회의통역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종화(2015)는 1997-2014년까지 『통번역학연구』, 『번역학 연구』, 『통역과 번역』 등 3개 학술지에 게재된 통역 관련 논문 226편을 총 8개의 패러다임으로 분류<sup>23)</sup>하였다. 이 분류기준은 대체로 회의통역에 해당되는 항목이지만, 이를 토대로 국내 통역연구에서 회의통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유추해 내기는 어렵다. 다만 저자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위 학술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1125편)에서 통역 관련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8%였다(원종화 2015: 44). 그리고 이 중 회의통역이 아닌 지역사회통역의 담화를 분석하는 양방향담화(Dialogic discourse-based interaction)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연구의 비중이 전체의 1.4%로 지극히 낮은 것(원종화 2015: 46)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회의통역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초반에 강세를 보이던 해석이론 모델에 의거한 논의가 2004년 전후로 감소하면서 통역교육, 전문직업/제도화 등의 주제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현희(2016)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통번역학연구』, 『번역학연구』, 『통역과번역』에 실린 통역 관련 논문 298편, 해외 학술지 3종(*Interpret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Meta*)에 실린 통역 관련 논문 274편, 여기에 더해 수어 통역 관련 연구 28편 등 총 600편을 분류,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회의통역 연구가 전체 통역연구의 79.75%를 차지하며 그 중 통역교육 관련 연구가 큰 비중<sup>24)</sup>을 차지한다(한현희 2016: 265, 269). 통역교육이 가장 빈번히 다루어지는 현상은 쥘(2000)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며 국내 통역연구자의 상당수가 통역교육을 겸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의 연구로는 김정우(2005), 이항(2011), 김혜림(2013)이 있다. 국내가 아닌 해외 통역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로는 학술지 *Meta*에 실린 통역관련 논문을 고찰한 림(Lim 2009), 중국의 통역학 연구를 고찰한 공수(2019)가 있다.

- 23) 기준으로 사용된 8개 패러다임은 IT(Interpretive Theory), CP(Cognitive Processing), NL(Neurolinguistic), TT(Target Text Oriented), DI(Dialogic discourse-based Interaction), ED(Educational), SP(Socio-professional), PP(Philosophical-speculative)이다(원종화 2015: 41).
- 24) 한현희(2016)는 국내학술지 중 『통번역교육연구』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통번역학 전문학술지가 아닌 기타 학술지에 수록된 수어통역 관련 논문은 포함시켰다. 『통번역교육연구』가 포함될 경우 통역교육 관련 논문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이창수(2019), 유한내(2020)는 통역과 번역을 포괄하는 계량서지학<sup>25)</sup>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창수 (2019)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4대 학술지에서 수집한 1299개의 영문초록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시기별로 분류, 분석하는데 특히 2013-2015의 키워드 분석에서 *interpreting, memory, simultaneous interpreting* 등 통역 관련 키워드의 등장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통역 관련 연구들이 활발했음을 확인한다(이창수 2019: 118). 유한내는 비교적 최근인 2015-2019년 기간을 대상으로, Wos(Web of Science)에서 검색된 통번역 관련 영어논문 3405편의 논문과, Wos 내 Korea Citation Index에서 번역 및 통역으로 동기간 검색된 한국어 논문 총 1440편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을 통번역 전문 학술지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이 연구에서 국내의 경우 4개 통번역학 학술지가 전체 통번역 관련 연구의 39%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유한내 2020: 146). 통번역학 외부에서 발행되는 연구의 상당수는 번역 관련 연구들로 추정되나, 이는 추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볼 일이다. 또한 국내의 논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상위 20개의 키워드를 비교한 결과 해외의 경우 통역(*interpreting*)이 6위이지만 국내에서는 통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았다(유한내 2020: 150).

위의 연구들은 적게는 200여 편에서 많게는 3000여 편에 이르는 국내외 통역 관련 논문들을 분류, 분석하여 국내 통역연구의 주요 키워드와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유추컨대, 국내 통역학은 번역학에 비해 훨씬 작은 공간<sup>26)</sup>을 점하고 있으며 해석이론을 필두로 한 회의통역, 그리고 통역교육이라는 해외 통역학의 전통적 키워드를 대체로 비슷하게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sup>27)</sup> 그리고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의통역이나 해석이론과 같은 전통적 키워드 중심의 초기 연구는 점진적으로 다양한 주제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통역연구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분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확장된 코퍼스를 바탕으로 한 양적, 질적 분석이 필요해

25) 통번역학에서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일찍부터 활용해 온 질(Gile)은 1990년부터 전 세계 회의통역 연구에 관한 서지정보를 정리한 CIRIN을 발행, 공유하면서 전세계 회의통역(CIR: Conference Interpreting Research) 연구동향을 분석해 왔다(참고 Gile 2000; Gile 2015). 학술지 *Perspectives* 23(2)에서는 통번역학에서의 계량서지학을 주제로 특별호를 기획하기도 했다.

26) 본 연구를 위해 국내의 5개 학술지(『번역학연구』, 『통역과번역』, 『통번역학연구』, 『T&I Review』, 『통번역교육연구』)에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게재된 총 1896편의 논문 중 통역 관련 논문의 수를 파악해 본 결과 대략 436편으로, 전체 논문 대비 22.9%에 불과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T&I Review』가 창간된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이다.

27) 물론 이는 보다 최근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시 확인해 볼 사항이다.

보인다. 가령 통역 관련 학위논문, 인접학문에서 발표된 통역연구, 국내 연구자의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통역 관련 저서/역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발표된 국내 연구들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살펴야 할 것이다. 표본의 규모가 작은 만큼 양적분석을 보완하는 질적분석들, 가령 통역연구자의 프로필, 인용지수가 높은 저자나 이론, 키워드 변화의 양상 및 맥락 등에 대한 추가적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회의통역에 집중하였던 기존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다루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5. 나오는 말

통역학의 중심화두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통역연구자들만의 일은 아니다. 통역학이 묻고 답한 문제들은 번역학과 무관할 수 없으며 결국 통역학과 번역학의 상호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는 다시 통번역학의 성격을 규정한다.

본고는 회의통역이 초기 통역학의 중심화두가 된 계기를 이해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1차대전 직후 유럽의 맥락으로 돌아가,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다언어 국제회의의 등장, 회의통역사라는 새로운 전문직의 부상,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후 동시통역의 보편화 등이 통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촉발시켰음을 확인하였다. 회의통역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사회적 수요는 이후 통역학이 하나의 학문장으로 구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통역학을 진단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가령 우리는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게 된다.

통역학의 출발점에서 회의통역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면, 그때와 현재히 달라진 현재의 상황에서 통역학은 무엇을 탐구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현재의 통역 현실에서 고유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간 회의통역 연구에서 누적되어 온 성과들은 회의통역 외의 다양한 통역에 어떤 방식으로 응용되고 적용될 수 있을까.

회의통역을 넘어선 통역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누가, 어떻게 포착하고 기술하고 있는가.

90년대 이후의 통역학이 지역사회통역, 대화통역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위 질문들에 대해 몇몇 지역의 통역연구자들이 내놓은 나름의 답일 것이다. 이민자가 많은 호주, 캐나다, 미국을 중심으로 개진된 지역사회통역 관련 논의들은 이제 우리의 중심화두가 될 것인가. 혹은 우리에게는 그와는 다른 현실, 다른 현상이 주어져 있는가.

통역학이 답해야 하는 수많은 물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 참고문헌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 연구』 6(2): 29-57.
- 김혜림. (2013).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14(4): 95-115.
- 고영민. (2004). 「대화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5(1): 5-24.
- 공수. (2019). 「중국 2005년-2017년 통역학 연구 동향 고찰」. 『T&I Review』 9: 153-174.
- 유한내. (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외 통번역 연구동향 비교」. 『통역과번역』 22(1): 135-158.
- 이창수. (2019). 「2010년대 국내 통번역학 연구 동향에 대한 키워드 분석」. 『번역학연구』 20(5): 107-127.
- 이향. (2009). 「해석이론의 특징과 한계」. 『번역학연구』 10(1): 121-140.
- 이향. (2011). 「국내 번역학 연구 경향에 관한 일 고찰」. 『통번역학연구』 게재논문의 분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5(1): 341-362.
- 이향. (2022). 「난민통역의 쟁점들」. 『번역학연구』 22(2): 9-28.
- 원종화. (2015). 「국내 통역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연구패러다임 변화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1): 35-64.
- 최한준. (2007). 「법정영화 뉘른베르크를 통해서 바라본 전범문제의 법정 고찰」. 『경영법률』 17(2): 439-469.
- 피히하커, 프란츠. (2009). 『통역학입문』 (이연향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현희. (2016). 「한국 통역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17(2): 251-286.
- AIIC. (n.d.) History of AIIC (online) Retrieved from <https://aiic.org/site/world/about/history> on 19 February 2023.
- Baigorri-Jalón, J. (2005). Conference interpreting in the first 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 (Washington, D.C., 1919). *Meta* 50(3): 988-996.
- Baigorri-Jalón, J. (2014). *From Paris to Nuremberg: The Birth of Conference Interpreting* (H. Mikkelsen and B.S. Olsen, Tran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aker, M. (2006). Non-cognitive constraints and interpreting strategies in political interviews. In Simms, K. (ed.), *Translating Sensitive Texts*. Amsterdam/Atlanta: Rodopi, 111-129.
- Bowen, D. and Bowen, M. (1985). The Nuremberg trials: Communication through translation. *Meta* 30(1): 74-77.
- Chernov, G. V. (1992). Conference interpreting in the USSR: History, theory, new Frontiers. *Meta* 37(1): 149-162.
- Cronin, M. (2002). The Empire talks back: Orality, heteronomy and the cultural turn in Interpreting studies. In Tymoczko, M. and E. Gentzler (eds.), *Translation and Power*. Amherst/Bost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45-62.
- EST (n.d.). About (online) Retrieved from <https://est-translationstudies.org/about/> on 1 April 2023.
- Gaiba, F. (1998). *The Origins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e Nuremberg Trial*.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Gile, D. (1994). Opening up in Interpretation studies. In Snell-Hornby, M., F. Pöchhacker, and K. Kaindl (eds.), *Translation Studies: An Interdiscipline*.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48-158.
- Gile, D. (1995). Interpretation research: A new impetus?. *Hermes, Journal of Linguistics* 14: 15-29.
- Gile, D.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into conference interpreting. *Target* 12(2): 297-321.
- Gile, D. (2009). Interpreting studies: A critical view from within. *MonTI* 1: 135-155.
- Gile D. (2015). Analyzing Translation studies with scientometric data: From CIRIN to citation analysis.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online)*. Retrieved from DOI: 10.1080/0907676X.2014.972418 on 4 April 2023.
- Gile, D. (2021). Personal socio-academic contribution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InContext* 1(1): 37-58.
- Gran, L. and Dodds, J. (1989).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Teaching Conference Interpretation*. Udine: Campanotto Editore.
- Guise, K. (2020).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the Nuremberg trial (online). Retrieved from <https://www.nationalww2museum.org/war/articles/translating-and-interpreting-nuremberg-trials> on 2 April 2023.
- Hanna, B. (1965). Les Écoles de Traduction. *Journal des traducteurs / Translators' Journal* 10(2): 51-59. (online) Retrieved from <https://doi.org/10.7202/1061145ar> on 5 April 2023.
- Herbert, J. (1952). *The Interpreter's Handbook: How to become a Conference Interpreter*. Geneva: Georg.
- Herbert, J. (1978). How conference interpretation grew. In Gerver, D. and W. H. Sinaiko (eds.),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Proceedings of the NATO Symposium o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New York: Plenum, 5-10.
- Lee, H. and Nam, W. J. (2019). The Past and fu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South Korea. *Perspectives* 27(3): 419-430.
- Lim, H. O. (2009). A meta-analysis of interpretation research in Meta.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11(2): 183-217.
- Minns, P. (2020). Birth of a Profession...in English (online) Retrieved from [https://aiic.org/document/1079/AIICWebzine\\_2020\\_Issue75\\_1\\_MINNS\\_Birth\\_of\\_a\\_Profession\\_in\\_English\\_EN.pdf](https://aiic.org/document/1079/AIICWebzine_2020_Issue75_1_MINNS_Birth_of_a_Profession_in_English_EN.pdf) on 2 April 2023.
- Paneth, E. (1957). *An Investigation into Conference Interpretation*. M.A. Thesis. University of London.
- Pinter, I. (1969). *Der Einfluss der Übung und Konzentration auf simultanes Sprechen und Hören*. Universität Wie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 Pöchhacker, F. (1998). Unity in diversity? The case of Interpreting studies. In Bowker, L., M. Cronin, D. Kenny, and J. Pearson (eds.), *Translation Studies: Unity in Diversity*. Manchester: St. Jerome, 169-176.
- Pöchhacker, F. (2017). Method in Interpreting studies: Tradition and innovation.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stitute* 21(1): 307-329.
- Rozan, J.-F. (1956). *La prise de notes en interprétation consécutive*. Geneva: Georg.
- Salvesky, H. (1993). The distinctive nature of Interpreting studies. *Target* 5(2): 149-167.
- Sanz, J. (1931). Le travail et les aptitudes des interprètes parlementaires. *Anal. d'Orientació*



- Professional 4*: 303-318.
- Schäffner, C. (2004). *Translation Research and Interpreting Research: Traditions, Gaps and Synergies*. Clevedon/Buffalo/Toronto: Multilingual Matters.
- Skuncke, M. F. (2002). Tout a commencé à Nuremberg...(online). Retrieved from <http://aiic.net/p/984> on 5 April 2023.
- The Interpreters' Newsletter. (2022). Looking back at interpreting in Nuremberg. Special Issue No 27 bis (online) Retrieved from <https://www.openstarts.units.it/handle/10077/34310> on 1 February 2023.
- Wadensjö, C.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On Dialogue Interpreting in Immigration Hearings and Medical Encounter*. New York: Longman.
- Widlund-Fantini, A. M. (2004). *Danica Seleskovitch: Interprète et Témoin du 20e siècle*. Lausanne: L'Age d'homme.

This paper was received on 8 May 2023; revised on 12 June 2023; and accepted on 20 June 2023.

---

*Author's email address*

leehyangmarina@gmail.co.kr

*About the author*

Hyang Lee is a Professor at Department of French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or ethics, histor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and interpreting for refugees.